주민 문화교류의 장 '호평'

무주상상반디숲 생활문화센터, 복합문화공간 각광… 동아리 활동·전시 등 북적

무주상상반디숲 지하 1층에 자리한 생활문화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창작과 동아리, 교육, 전시·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개관 이후 이용객(2025. 7. 20. 기준)이 1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발표회, 공연 등을 위한 '다목적홀', 댄스와 요가 등이 가능한 '마루교실', 음악 활동을 위한 방음 공간 '큰소리방'과 '작은소리방', 동아리 활동과 교육, 회의 등이 가능한 학습실의 이용 누적 건수도 1,251건에 달한다.

전현민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도서관팀장은 "모든 공간은 대관을 통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라며 "주민들이 생활문화센터에 모여 개인 악기 연습부터 동아리 합주나 합창, 독서 토론, 요가 등 다양한 관심과 취미로 소통하거나 전시 관람과 담소를 나누며 일상에서 문화교류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상상반디숲 지하 1층에 자리한 생활문화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시 관람과 휴게를 위한 마주침공간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박현민 동화작가 그림책 원화 전시 "얘들아 놀자!"를 비롯해 "다시 만날 태권브이", 무주사진가협회 "무주구천동 33경 사진전" 등 10가지의 설치미술 작품과 그림, 사진 전시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7월 14일부터는 한국아트크레프트협회 회원전 "자연의 순환 무주 展(월요일 휴관, 관람 및 이용 시간 평일 09:00~21:00 / 주말 09:00~17:00)"이 펼쳐지고 있다.

전시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자연과 예술의 조우, 생명과 치유의 흐름을 담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강유빈 작가의 "자연의 리듬"을 비롯해 35명의 작가가 자연의 섬세한 감동을 예술로 풀어낸 다양한 작품들과 만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집중호우 속 상수도 총력 대응

진안군, 도내 타 지자체 대비 많은 상수도 시설물에도 공급 차질 없어

진안군은 최근 집중호우 기간 중 상수도 분야에서 철저한 사전 대비와 발빠른 현장 대응으로 단 한 건의 수돗물 공급 차질 없이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군은 4개의 지방정수장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내 타 지자체보다 3배 이상 많은 260여 개소의 가압장,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어 자연재해 시 유지관리의 난도가 매우 높다.

지난 주 이어진 이번 집중호우 기간 중에도 낙뢰로 인한 전기시설물 파손 신고가 총 15건 접수됐지만 군은 자체 모니터링과 사전 점검을 통해 25건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선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침수 및 도로 유실로 일시적인 단수 우려가 발생하자, 즉시 생수를 지원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대응의 배경에는 2024년

하반기 실시된 상하수도과 조직 개편의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진안군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정수 생산, 공급, 운영 분야로 세분화·전문화함으로써 현장 대응력과 복구 속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현장 대응체계가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측 기반의 상수도 관리체계를 강화해 군민 모두가 안정적인 수돗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투명성·참여성·효율성 강화 통한 책임 의정 구현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의결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사진)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0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명확화, △접수 및 보완 절차 강화, △채택·불채택 제안의 관리기간 규정, △성과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 확인 절차 도입, △관련 서식 준용 규정 신설 등을 담아 운영 절차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함께 통과된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를 반영해 △출장계획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 △예산 편성·집행 기준 마련, △결과보고서 제출 및 의회 심의 등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루라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제안제도의 사후관리와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공무국외 출장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백운면 행복주택'으로 마을 활기

진안군, 8월 11일부터 12세대 47명 입주 시작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원촌마을에 조성된 '백운면 행복주택'이 지난 18일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오는 8월 11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입주 개시로 관외에서 유입된 4세대 16명을 포함한 총 12세대 47명이 백운면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며, 한동안 조용하던 농촌 마을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다.

백운면 행복주택은 농촌유학 가족,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총 12세대 규모로 공급됐다.

월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4세대는 25만원, 8세대는 20만원으로 책정돼 젊은 세대와 전입 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백운초등학교의 학생 수 증가로, 전입 학생이 10명 증가해 전체 학생 수가 22명에서 32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던 학교 통폐합 우려가 해소됐으며, 마을 교육 기반 유지에도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전춘성 군수는 "행복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마을의 미래를 되살리는 시작이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백운면이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도서관·문예회관 총괄 컨설턴트 위촉

진안군은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학천지구에 건립 예정인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의 품격을 높이고 지속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총괄 컨설턴트(민간전문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진안군 도서관·문예회관 총괄 컨설턴트로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제8기 위원인 고재민 수원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촉된 총괄 컨설턴트는 향후 2년간 도서관과 문예회관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두 건물의 건축 정책 방향을 제시함을 물론, 학천지구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건축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해 행정 중심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공공사업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아름답고 기능적인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는 군민들에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진안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자봉센터,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나눔 간담회 가져

2025년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나눔 자원봉사' 간담회가 23일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 이희숙 센터장이 주재하며,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나눔 자원봉사'는 지역 내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자동방충망 설치,

태양광 가로등(센서등) 부착,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이 포함되며, 이번 사업에는 장수가야청년봉사단(회장 박성주)이 함께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휴가철 맞아 구천동 관광 안내 상황실 운영

무주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구천동 관광 안내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황실(1일 관광 등 6개 부서 각 1명씩 근무)은 방문객들의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무주 여행을 돕기 위해 오는 8월 17일까지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 관광특구 삼공지구 일원에서 운영된다.

무주군청 관광시설, 재산관리, 하천, 자원순환, 위생관리, 지역경제, 교통행정, 건설행정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기간 관련법에 근거해 △도유지 평상 철거 등 공유재산 관리와 △계곡 하천부지 내 취사 야영 및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식품위생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안정 대책, △불법 교통시설물 정비 및 교통 대책,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등에 매진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토종 붕어 치어 7만5천 마리 방류

장수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과 친환경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난 18일 번암면 등 관내 2개 하천에 토종 붕어 치어 7만5천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에는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7명이 함께 참여해 붕어 치어를 직접 하천에 방류해 건강한 수생환경 조성과 자원 복원의 의미를 더했다.

방류된 붕어 치어는 최소 3㎝에서 최대 5㎝까지 성장한 건강한 개체로 어류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종자다. 방류 후 2~3년이 지나면 약 20㎝ 내외로 성장해 내수면 어족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붕어는 잡식성 어종으로 수질 정화와 생태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낚시자원은 물론 자양강장·빈혈 완화 등 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있어 수요가 높은 어류다.

장수군은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과 함께 금강 및 섬진강 본류가 흐르는 청정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다슬기·메기·쏘가리 등 다양한 토산 어종을 방류하는 생태 복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